

서인도제도의 로망스어 관련 혼성어 발음에 관한 고찰*

- 중미의 Garífuna어와 큐바내 Patois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Creole Languages' Pronunciation in the West Indies

- Centering on Central American Garífuna and Cuban Patois -

김 우 중**

(Kim Woo-Joong)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 general review of Garífuna and Patois, creole languages which developed out of the sociohistorical situation of the last centuries and are mainly spoken in the West Indies and Carribean Coasts. In this paper, I present some notes and ideas on the linguistic developments and features of these languages. Especially I describe their function connected with a variety of social circumstances and their phonetical/phonological changes from the base languages.

This is a result of fieldwork conducted in Honduras, Belize, Cuba and Mexico, from January 1996 to February 1998, using some surveys and collecting words from different materials and texts. And I hop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research in 'mixed' languages as well as to historical linguists.

I am very grateful to Mr. Mauricio Tomás, the only university student in Travesía, a small town in nothern Honduras and to Mr. Carlos Marcos, a medical student who is from a Haitian family in Santiago de Cuba. Without their cooperation, I couldn't have conducted this research.

Keywords : creole, Patois, Garífuna, phonetical/phonological changes

I. 서 언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이후 500년간 유럽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분포만큼이나 역사언어학적으로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그런 가운데 크리올(creole)이라고 불리는 신생 혼성 언어가 여러 개 생성되었기에, 언어들 간의 관련성과 연원을 따져보고 '분화-통합'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언어 발달의 일반적 특징을 추출해내려고 하는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언어의 형성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외국어대학 서어서문학과 교수

및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존하는 혼성어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때,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중에서도 구어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혼성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생물의 기원이나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을 탐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떨어진 섬이나 오지에서 원형을 많이 간직한 채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를 통해 유력한 근거를 찾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것과 똑같은 이치다.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피진(*pidgin*), 크리올(*creole*) 등 혼교어 또는 혼성어에 관한 연구는 미국, 네델란드, 캐나다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전문 학회까지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나 현장 답사 활동이 전무한 형편이다. 그리고 그간의 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개별 혼성어만 다루었을 뿐, 각 혼성어간의 특징이나 발달, 역사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였다. 이를 감안 한국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향후 현존하는 혼성어 중 사용 지역별, 어족별로 중요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공시적·통시적 연구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자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마라카이보(*Maracaibo*)에 있는 빠라구아나(*Paraguaná*) 반도 북동쪽 인근에 위치한 아루바(*Aruba*)섬의 빠피아멘토(*Papiamentu*)어¹⁾를 시작으로 로망스어와 관련된 혼성어 또는 해당 유럽 언어의 혼성 요소에 대한 *field work*, *case study*, 자료 발굴을 계속해오고 있다(김우중, 1982, 1994 ; Kim, 1993). 본고에서는 필자의 두번째 사례 연구어인 괌(*Guam*)의 차모로(*Chamorro*)어²⁾ 이어 세번째로 행한 중미 카리브(*Carib*)해 연안 일대의 가리후나(*Garífuna*)어와 현지 연구 네번째 순서인 서인도제도의 큐바(*Cuba*) 동부 지역 사용 빠투아(*Potois*)어에 대한 비교·고찰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상기 두 혼성어가 로망스계열 언어인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발음 변화 현상의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를 갖고 대비하였다.

본고의 내용중 Patois의 역사와 인구 통계에 관한 것은 현지 취득 도서(*Arsuaga*, 1977) 및 인터넷 자료(*Bretous*, 1996 ; *Garinagu's Path*, 1998)를 참고한 것이고, 언어 현상 자료는 주로 1996. 12에서 1998. 2 사이에 Mexico 및 Cuba에서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Garífuna*의 언어 현상이나 사용 분포 및 특징에 관한 것은 필자가 1996년 2월에 Honduras의 푸에르토 포르테스(*Puerto Cortés*), 트라베시아

1) 17세기부터 남미 카리브해 연안 및 섬 지방에서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 사이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온 혼성어. 문법 구조면에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근간으로 하고 네델란드어의 일부 어휘와 서부 아프리카의 제 언어의 요소가 혼합되어 생겨난 언어로서 현재 남미의 *Venezuela*와 콜롬비아(*Colombia*)에 인접한 큐라사오(*Curaçao*), 본아이레(*Bon Aire*), 아루바(*Aruba*)에서 약 20만명의 인구가 일상어로 사용하며, 준공용어로서 신문과 방송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2) 태평양상의 마리아나(*Mariana*)에 속하는 괌과 사이판 섬의 원주민이 스페인 정복자의 침입 이전부터 대대로 사용해오던 *Malayo-Polynesia*어족의 한 언어. 타갈록(*Tagalog*)어 등 필리핀 제어 계열에 가깝다는 설이 유력하다. 특히 괌의 차모로어에 스페인어와의 혼성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Travesía) 마을과 Belize의 벨리즈시티(Belize City), 오렌지 워크(Orange Walk)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Garífuna 화자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임을 밝힌다(별첨 지도 참조).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세계의 수많은 혼성어 생성 지역중 서인도제도를 택한 것은 이 지역이 콜롬부스가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일 뿐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부를 찾아 건너와서 전개한 식민지 활동의 전진 또는 중간 보급 기지로서 끊임없는 역할을 하였으며(김현창, 1990),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륙 지역과 달리 제일 늦게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럽인의 식민 지배를 가장 오래도록 받았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언어의 보존, 발달, 분화, 생성 현상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원주민인 인디오와 정복자인 유럽인들 외에, 노예로 수입된 아프리카 흑인 문화의 영향이 지대하였기에 여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곳이며(Lipski, 1994), 따라서 언어의 혼성화 현상을 비교, 고찰하는 데는 현상 사례의 보고(寶庫)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인도제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관계로 각 섬마다 독특한 언어 현상을 지님과 동시에 상호 교류 또는 혼교, 혼성 작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언어의 일반적 특성 및 생성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볼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II. Garífuna어에 관한 고찰

1. Garífuna어의 역사적 배경

Arawak족과 Carib족은 원래 남미의 막달레나(Magdalena)강 및 오리노코(Orinoco)강 유역과 부근 오지의 호숫가에서 농업, 수렵, 어업에 종사하며 살던 종족이었다. 2세기경부터 Orinoco강 유역의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으로 Arawak족이 먼저 Carib해의 여러 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주하기 시작했고, 13세기 초에는 호전적인 Carib족이 뒤를 이어 이주하여 Arawak족을 제압하고, 그들이 선점하였던 Carib해의 여러 섬들을 장악하면서 Arawak 여성들과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새로운 Carib 혼혈족³⁾이 생겨났다.

특히 이들은 Carib해 남쪽에 위치한 과달루프(Guadeloupe), 그레나다(Grenada), 세인트 빈센트(Saint Vincent), 트리니다드(Trinidad), 토바고(Tobago) 같은 섬을 위시하며 20~30개의 섬을 정복하고 생활 근거지로 삼았는데, 이 중에서도 굴곡이 심해 어장으로 입지 조건이 좋고 험난한 산악 지형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처하기 쉬운 St. Vincent섬이 그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후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Cuba나 Puerto Rico같은 큰 섬의 원주민들은 학살이나 강제 노역으로 인해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으나 Carib족들이 주로 거주하던 이 St. Vincent섬은 여전히 안전 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1635년에 광산과 농장 일손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서인도제도로 운송하던 스페인 선박 두 척이 St.

3) 이들은 남미 대륙에 사는 Carib족과 구별되어 Island Carib족으로 불리우거나, 흑인과의 혼혈족인 Black Carib와 대비되어 Yellow Carib으로 불리운다.

Vincent 섬 부근에서 난파되자, 흑인들은 배에서 탈출하여 이 섬의 Carib족 거주지에 은신처를 삼았다. 유럽인들의 침략에 늘 대비해야 했던 Carib족들은 흑인들을 용원군으로 환영하고 또 보호해주었을 뿐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혼인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이 흑인 노예들을 자연스레 섬 주민인 Carib족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동화되면서 양측의 혼혈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결국 여기서 우리가 Garinagu라고 부르는 흑인 카리브(Black Carib)족이 생겨났고, 순수 Carib족은 차츰 소멸하고 혼혈 흑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수십년간 이 흑인 Carib족들은 주변 섬까지 장악하면서 위세를 폈으나 계속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의 정복욕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전투에서 죽거나 암살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1763년에 파리 강화조약으로 영국이 St. Vincent 섬을 차지한 후에도 흑인 Carib족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1795년에 그들의 왕이 살해되고 영국은 완전히 이 섬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흑인 Carib족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던 중, 영국인들은 1797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0여 명이 넘는 이들을 강제로 전함에 태워 오늘날 Honduras 해안 가까이 있는 로아탄(Roatán)⁴⁾섬과 보나까(Bonaca)섬으로 추방하였으며, 이곳에서 몇 년간 머물다 차츰 Honduras 해변으로 건너가 살았다. 마침 공화파와 왕당파가 대립하던 Honduras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흑인 Carib족은 왕당파 쪽에 가담하였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박해를 피해 대거 인근 영국령 Honduras(오늘날의 Belize)의 해안으로 이주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의 Honduras의 트루히요(Trujillo), 라 세이바(La Ceiba)나 Belize의 뽀따 고르다(Punta Gorda), 단그리가(Dangriga) 등에 Garinagu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별첨 지도 1 참조).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Arawak족이 남미 대륙에서 먼저 Carib해 도서 지역으로 이주하고, 오랜 세월 뒤에 호전적이 Garib족이 뛰어난 카누 제작 및 이용 기술을 바탕으로 교역이나 기습 공격을 통해 Carib해 일대를 정복하면서 각 섬에 흩어져 살고 있던 Arawak족을 압도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Arawak 남성들은 대부분 죽고,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항복하거나 함으로써 Carib족 남성의 처첩이 되었다. 언어가 서로 다른 이들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lingua franca를 도입하지 않고 각기 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남성 언어로서의 Carib어와 여성 언어로서의 Arawak어가 별도로 존속하고 또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녀간에 서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는 하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언어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는 Cayetano(1990)가 인용한 Taylor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In due course the Carib-Arawak offspring evolved a spoken language with two versions: the female Arawak version, and male Carib version, each distinct yet mutually understandable by both. This pattern has survived to this day in the Central American Garifuna language.

이후 혼혈 세대가 등장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양 언어 역시 자연스럽게 상호 동화

4) 기록에 의하면 이 섬에 도착 당시 최종 생존자는 성인 남자 664명, 여자 720명, 어린이 642명 등 총 2,026명이라 한다(Palacio, 1993).

되어 새로운 혼혈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노예선에서 탈출하여 Yellow Carib 족과 맺어지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요소가 일부 가미되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식민 강국들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어휘가 편입되어 태동, 발전하여 온 것이 Garífuna어이다.

어업과 수렵에 종사하며 외부로 떠돌던 Arawak족과 Carib족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과일 채취와 곡물 경작 등 농사일을 하며 집안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두 종족 간에 태어난 자식들은 아버지 언어인 Carib어보다는 어머니 언어인 Arawak어에 접할 기회가 더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근간으로 한 Garífuna어가 생겨났다. 다만 어휘나 일부 문법 요소에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엄격히 구분되어 전해져오고 있다. 흑인 노예의 출신지인 서부 아프리카 지역 언어의 요소가 일부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종족이 다양하여 사용 언어 역시 서로 판이하므로 혈통상으로는 아프리카 요소가 우세하였지만, 언어적으로는 원주민인 혼혈 Carib족의 것을 택하였으므로 Garífuna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중 Arawak어족의 특징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2. Garinagu 및 Garífuna어의 분포

Garinagu의 인구 분포로 보아 Honduras가 Garífuna어 최대 사용국이다. 이는 영국인 으로부터 St. Vincent섬에서 추방당한 흑인 Carib족들이 Honduras의 북부 해안에 근접한 Roatán섬에 수용되었다가 Honduras 본토로 대부분 이주하였고, 그 후손들 역시 인근 국가인 Belize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 Honduras의 카리브해 연안에 흩어져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Honduras 내의 51개 Garinagu 집단 거주지 가운데 80 % 이상인 43개 취락이 Honduras 북쪽 대서양 해양선을 따라 서쪽으로는 Puerto Cortés로부터 동쪽으로는 Río Paulaya에 이르기까지 형성, 발전되어 왔다. 이 나라 Carib해 연안의 거의 모든 마을이 Garífuna어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Roatán섬에서 직선 거리에 있는 La Ceiba와 Trujillo는 Garinagu가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곳이다. 1991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Honduras에는 중미 및 Carib해 전체 Garinagu의 70 %에 해당하는 70,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림잡아 1개 취락은 평균 1,000~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일자리를 찾아 1832년부터 Garinagu는 대거 Belize(당시의 영령 Honduras)로 강제 또는 자발적 이주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오늘날 Belize, 특히 Honduras 해변가에서 해로로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스탠 크릭(Stann Creek) 지방에는 다음 통계표에서 보듯, Belize 거주 Garinagu 20,000여명 중 50 %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별첨 지도 1 참조).

Belize의 Garinagu는 마야 계통 원주민, 자마이카(Jamaica)계 Creole, Mestizo 등 다인종 사회에 섞여 사는 경향인 반면, Honduras의 Garinagu는 유럽계 백인이나 Mestizo 거주 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Carib 해안 지역에 모여 사는 관계로 비교적 재혼혈이 덜 이루어졌고 그 만큼 Garífuna의 전통도 더 잘 보존되어 있다. Garífuna 문화권의 양대국인 상기 두 나라 이외에도 과테말라(Guatemala)와 니카라과(Nicaragua)에도 일부 취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 이민이 성행했던 관계로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90,000 명의 Garinagu가 살고 있다. 1991년을 전후한 Garinagu의 나라별 거

주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Palacio, 1993).

표. Belize의 Garinagu 인구 분포

지방명(地方名)	전체 인구 대비(對比)	Garinagu 전체 대비(對比)
Stann Creek	36.2 %	51.5 %
Belize	5.3 %	23.2 %
Toledo	10.7 %	14.3 %
Cayo	1.7 %	5.1 %
Corozal	1.3 %	3.0 %
Orange Walk	1.2 %	2.5 %

자료: Myrtle Palacio(1993)

New York : 100,000 명
 Honduras : 70,000 명
 Belize : 22,000 명
 Guatemala : 18,000 명
 Nicaragua : 1,500 명
 서인도제도 : 10,000 명 (?) 합계 : 약 220,000 명

3. Garifuna어의 언어학적 특징

1) 음소(音素)

모음 - 스페인어 모음과 음가가 비슷한 5개의 모음이 있음.

<예> /a/, /e/, /i/, /o/, /u/

자음 - 모두 15개로 전반적으로 영어의 자음 음가와 비슷하고, 무성음의 경우 우리말의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중간 형태임. 양순음 /v/와 치간음 /ð/, /θ/, 구개음 /z/, /ʒ/, /ʒ/는 없음.

<예> 순음(唇音) : /b/, /p/, /m/, /f/

치경음(齒莖音) : /d/, /t/, /s/, /n/, /l/, /r/

경구개음(硬口蓋音) : /tʃ/

연구개음(軟口蓋音) : /g/, /k/

후두음(喉頭音) : /h/

반자음(半子音) : /w/, /j/

2) 형태소(形態素)

① 인도유럽어족의 전치사보다는 한국어의 후치 조사(助詞)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접사 사용이 일반적임.

<예1> 하늘 + ~로부터 = 하늘로부터 (한국어)
 duei + ~ gien = dueigien (garifuna)

<예2> 하늘 + ~에서 = 하늘에서 (한국어)
 duei + ~rügü = dueirügü (garífuna)

② 대화 상대의 성(性)을 변별하는 접사 사용 : 여성은 t-, 남성은 l-로 구별함.

<예>바 보 : libioduníga / tibioduníga

즉 시 : guenle / guente

최 근 : ligiragbuga / tuguragbuga

③ 명사, 형용사, 동사는 물론 때로는 전치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써 성과 수를 구별함. 스페인어의 ser 같은 동사는 없고 한국어처럼 수식형용사에 포함되어 나타남.

3) 어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탈출한 흑인 노예의 출신지가 다양한 관계로 특정 아프리카 언어가 우위를 점할 수 없었고, 서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피신처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의 보호자 격이었던 Carib/Arawak족의 언어 환경에 적응하고 동화할 수밖에 없었기에 음식, 종교, 약기, 제사 등과 관계되는 소수의 어휘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계통 어원의 단어 수는 미미하다.

4. 스페인어원 차용어의 발음 변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차용어는 의미의 변화는 크게 겪지 않았으나 발음은 어중모음(語中母音)첨가, 유성음화(有聲音化), 폐모음화(閉母音化) 등의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Papiamentu의 스페인어 차용어에서 나타나는 /o/의 [u]로의 변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과 일반적으로 다른 혼성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많이 보이는 /f/의 양순음화(兩脣音化)와는 반대로 /b/와 /p/의 순치음화(脣齒音化) 현상이 많은 것이 흥미롭다.

<예> 모음첨가(母音添加) : padre > fadiri (아버지)
 espada > isubara (칼)
 carta > garada (편지)
 sal > salu (소금)

유성음화(有聲音化) : vaca > bagasu (소)
 zapato > sabadu (신발)
 caballo > gabaiu (말)
 mitad > mida (절반)

순치음화(脣齒音化) : bandera > fanidira (깃발)
 padre > fadiri (아버지)
 palma > faluma (종려나무)

폐모음화(閉母音化) : badea > badia (찌꺼기)
 espada > isubara (칼)
 minuto > minutu (분)
 vino > binu (포도주)

이중모음화(二重母音化) : cañas > ganiesi (갈대)
 cinco > seingu (다섯)
 fila > filei (칼날)

기타 : ¿que hora? > ka .ora? (몇시입니까?)
 diez > disí (열)
 caballo > gabaiu (말)

III. Patois어에 관한 고찰

1. Patois어의 역사적 배경

Haiti는 1492년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처음에는 스페인 소유였다가 영국인들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 유럽인들이 처음 Haiti에 들어왔을 때는 원주민들은 금 등 여러가지 진귀한 물건을 바치는 등 호의적이었으나, 유럽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였고, 평화로운 생활에 익숙해 있는 원주민들은 육체적 과로와 유럽에서 들어온 여러 질병 때문에 멸종되어 갔다. 그러자 이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당시에 성행했던 흑인 노예 무역 거래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서부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들여왔다. 이들은 출신 지역이나 부족이 제각각이었기에 사용하던 언어도 다 틀렸다.

노예상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서인도 제도로 이주해온 이들은 당연히 백인 주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반면에 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었으나,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렇다고 유럽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은 각 언어의 부분, 부분을 조금씩 익히며 짜맞추어 자기들 뜻을 주고 받았고, 이것이 200년간의 세월이 대를 이어 흘러가면서 하나의 정형화된 언어로 발전하였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혼성어를 creole이라 하고, 특히 Hispaniola섬⁵⁾ 서쪽을 차지한 프랑스령 Haiti의 혼성어 creole을 Patois라 칭하게 된다.

2. Patois어의 분포

앞서 소개한 Garífuna어는 그 사용 인구수에 비해 분포 지역은 카리브해 곳곳에 걸쳐 있는 반면, Patois어는 사용 지역은 대(大)안틸레스 군도(群島)중 Hispaniola 섬과 Cuba 섬 등 양대 도서 지역에 600만 사용 인구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Haiti	:	5,700,000 명
Cuba	:	200,000 명
Dominica공화국	:	100,000 명
New York	:	200,000 명
Canada	:	소수 이주민
Puerto Rico	:	소수 이주민

5) 큐바섬에 인접한 섬으로 서쪽 1/3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Haiti가, 동쪽 2/3은 스페인령이었던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이 점하고 있다(Henríquez, 1987).

3. Patois어의 언어학적 특징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Patois는 지배국이었던 프랑스의 언어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해온 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7세기와 18세기 당시의 프랑스어가 Haiti 내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의 모국어인 서부 아프리카 계열의 다양한 언어 영향을 받아 형태면이나 구문면에서 변형을 하여 lingua franca로 사용하게 된 것이 Patois어의 언어학적 특징의 바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어휘면에서는 대부분 프랑스 어원의 단어들을 그대로 취하였다. 따라서 Patois는 외양상 프랑스어의 음운, 형태, 구문, 어휘적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나 실은 프랑스어와 서부아프리카 여러 언어의 혼합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문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프랑스어의 굴절적 특징이 대부분 소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거의 모든 creole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 Patois의 경우 로망스어 중에서도 발음상 굴절 현상이 제일 많이 축소되어 있는 프랑스어를 근간으로 하였기에 이 특징은 여타 creole에 비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명사형은 단·복수 구별이 없다. 단·복수 구별은 명사에 붙은 접사(프랑스어의 정관사에서 온 것)로 하며, 숫자 *une*가 부정관사 역할까지 한다. 별도의 축소형 접미사를 가지는 프랑스어와는 달리 '작다'는 뜻의 형용사 *petit*를 접두사로 하여 축소사를 만든다.

동사형은 원형이 굴절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된다. 시제와 법은 동사의 어미 변화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보조사에 의해 표현된다. 조동사 등 보조사(補助詞)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과거, 직전과거, 조건법, 과거진행형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현재형과 과거형도 부사가 함께 쓰이지 않으면 구별이 안된다.

Patois는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 같이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을 가진다. 소유 관계는 '피소유물'과 '소유자'를 나란히 늘어놓아 나타내며, 관계절은 프랑스어의 위치 부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여 표현된다. 몇몇 단어에서 프랑스어의 전설원순모음(前舌圓盾母音)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음의 고저에 의해 뜻이 구별되며, 강세는 프랑스어처럼 대부분 마지막 음절에 온다.

4. 큐바내 Patois어

Cuba에 이웃한 Haiti에서 Patois어를 쓰는 흑인들이 대거 Santiago de Cuba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791년부터 Haiti가 독립을 이룬 1800년대 초까지이다. 이 무렵 Haiti에서는 프랑스 지배에 대한 항거로 흑인들의 봉기가 자주 있었고, 그만큼 대립도 많았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 서쪽에 있는 인근 Cuba섬으로 도주한 Haiti인들이 급증했는데, 역사가들의 추정해 의하면 당시 30,000명 이상이 Cuba섬의 동쪽 해안으로 들어왔고, 그들 대부분은 Santiago de Cuba를 중심으로 한 동부 평야 및 산악지대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한다(별첨 지도 2 참조). 이 곳에 자리잡은 그들은 커피, 사탕수수, 카카오, 목화 등을 재배하면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도입한 농업 기술보다 더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Paz Pérez, 1994). 더불어 1811년 흑인 독립국 Haiti가 출범하면서 프랑스인 식민지 관리들도 이 지역으로 정치적 망명처를 찾아 왔는데, 대부분 자기 가족뿐 아니라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까지 데리고 왔다. 이들 흑인 노예 출신들은 그들 고유의 관습, 신앙, 노래, 춤 등은 물론이고

Haiti에서 이미 발전해온 Patois도 잊지 않고 가져왔다.

Martínez Gordo(1989)가 소개한 Boytel Jambú(19??)의 기록에 의하면 이 Patois어는 계층에 관계없이 Cuba 동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El patois-cubano, lengua relativamente nueva y sumamento corta, fue hablada por decenas de miles de almas desde los finales del siglo XVIII entre amos y esclavos y libertos, en la Sierra Maestra, y preferentemente usada al francés, idioma de los amos y español, idioma oficial de la colonia.

(큐바내 Patois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언어이며 아주 단순화된 말이다. 이는 농장주와 농장 노예, 평민에 이르기까지 수만명이 Maestra 산악지대에서 사용한 말이며, 농장주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나 이 지방의 국가 공용어인 스페인어보다 더 선호하여 쓰던 언어이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 사용 지역인 큐바에 유입되어 퍼진 Patois는 그렇지 않아도 배우지 못한 노예 출신의 언어 습관에 따라 단모음화 등 단순화하여 발음되는 경향이 농후하였는데, 프랑스어에 비해 자음이나 모음의 수가 적은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더욱 더 쉽게 발음하려는 현상이 생겨났다.

어두음첨가(語頭音添加) : 스페인어의 영향으로 s로 시작하는 단어에 e를 덧붙여 발음하는 경우와 프랑스어에서 연음될 때 나타나는 단·복수 정관사의 말음(末音)이 명사형에 첨가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또한 프랑스어 복수형의 어말 자음 -s는 묵음이므로 Patois어에서는 아예 표기를 안한다.

∅ + stupide	>	estupid (바보)
la + église	>	leglís (교회)
le + enfer	>	lanfér (지옥)
le + or	>	lor (금)
le + etang	>	letang (연못)
les étoiles	>	zetual∅ (별)
les éperons	>	zeprón∅ (박차)
les oranges	>	zorang∅ (오렌지)
les oreilles	>	zorey∅ (귀)
les oeuvres	>	zev∅ (작품)
les ailes	>	zel∅ (날개)
les ongles	>	zongue∅ (손톱)
les aiguilles	>	zegui∅ (바늘)

자음변화(子音變化) :

comme ça	>	consá (그렇게)
l'autre	>	loy (다른)
chemise	>	chimill (셔츠)

음운전위(音韻轉位) :	fourmi	>	fromi (개미)
단모음화(單母音化) :	bleu	>	ble (푸른)
	cuillère	>	cuvér (숟가락)
	diable	>	dibrí (악마)
	oeuvre	>	zev (작품)
	puits	>	pi (우물)
어중음소멸(語中音消滅) :	alpargata	>	alpaØgat (샌달)
	calabaza	>	calØbass (호박)
	personne	>	peØson (nobody)
어말음소멸(語末音消滅) :	sable	>	sablØ (모래)
	fille	>	fiØ (딸)
	cuiivre	>	cuivØ (구리)
	foudre	>	fudØ (빛줄기)
	mesure	>	mesúØ (측량)
어중음첨가(語中音添加) :	diabøle	>	dibrí
개모음화(開母音化) :	fourmi	>	fromi (개미)
	chien	>	chen (개)
	chercher	>	chaché (찾다)
	puce	>	pis (벼룩)
	ínundé	>	ínondé (범람하는)
	labourer	<	laboré (밭을갈다)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	petit	>	pitit (작은)
	chemise	>	chimill (셔츠)
	face	>	figuí (얼굴)
후설모음화(後舌母音化) :	cheval	>	chual (말)
	rosée	>	ruse (이슬)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서인도제도에서 생성·발전되어 카리브해 일대에서 사용되는 혼성 언어 중 원주민 언어 요소가 근간을 이룬 Garífuna어와 유럽 언어 요소가 중심이 된 Patois어

를 비교·소개함으로써 언어 발달 과정의 원리를 편린으로나마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로망스계열 언어인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단어의 발음이 각각 혼성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위에서 기술한 여러 사례를 놓고 비교·고찰해볼 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언어의 경제적 현상이 혼성어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아울러 다음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 1) 연음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프랑스어가 바탕이 된 Patois어에서는 연음을 ultracorrección(과잉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음의 어두 첨가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연음 현상이 그리 흔하지 않은 스페인어 단어가 많이 유입된 Garífuna어에서는 어두음 첨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2) 음절 끝이나 낱말 끝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은 '개방형' 스페인어의 영향과 원주민어의 영향으로, Garífuna어 생성 과정에서는 자음 사이의 모음 첨가 현상이 많이 일어났으나, Patois어의 경우 첨가 사례는 없고 오히려 어중 자음이나 모음의 소멸 현상을 일부 보인다.
- 3) Patois어에서는 단모음화와 폐모음의 개모음화가 많이 이루어진데 비해, Garífuna어에서는 폐모음이 개모음화하거나 단모음이 분화하여 이중모음화되는 현상이 많다.
- 4) Patois어의 사례를 두고 볼 때, 혼성화 과정에서 어말음의 소멸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혼성어 구성 요소의 근간을 이루는 유럽 언어는 주요 특징인 굴절 현상도 아울러 소멸됨으로써, 품사별 문법적 형태나 기능의 구별이 모호해짐으로써 고립어인 중국어처럼 어순이 의미 변별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현상을 갖고 볼 때, 굴절어, 교착어, 고립어의 발달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더 많은 혼성어에 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감사의 말

필자가 이 연구 보고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1996년 1-2월에 걸쳐 중미의 Honduras의 Travesía에서 현지 답사를 하던 중 만난 현지의 유일한 대학 출신인 Mauricio의 증언과 그가 빌려준 수기(手記) 자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1997년1월-2월 Cuba에서의 답사 활동시 증언해준 Haiti계 큐바 의대생 Francisco Vespargne Hardy, 그리고 1997년12월-1998년1월 멕시코에서의 연구자료 수집시 현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말이 큰 보탬이 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감사히 여기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우중. 1982. "중남미 서반아어의 지역별 특성과 사회언어학적 입장에 관하여." 논문집 제25집.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우중. 1994. "Chamorro어와 스페인어의 혼성현상." 어문학연구, 제7집. 효성여자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 김현창. 1990. 스페인어발달사. 신아사.

- Arsuaga, María. 1977. *Manual de Español(Spanish Manual)*. University of Puerto Rico.
- Bretous, Wanddloff. 1996. *The origin of Haitin Creole*. www.eli.wayne.edu.
- Castillo, Carlos. 1977. *Spanish-English Dictionary*. Chicago University Press.
- Cayetano, Sebastian R. 1990 *Garifuna History & Culture*. Belize.
- Henríquez Ureña, Pedro. 1987. *El español en Santo Domingo(Spanish of Sano Domingo)*. Editorial Taller.
- Jambú, Boytel. 19??. Documento no identificado(unidentified document).
- Kim, Woo Joong. 1993. "Observaciones sobre el papiamento de Aruba (A Study on Arubian Papiamento)." *Proceedings, Tokyo*. The Asian Association of Hispanic Studies.
- Lipski, John M. 1994. *Latin American Spanish*. London & N.Y. : Longman.
- Martínez Gordo, Isabel. 1989. *Algunas consideraciones sobre patois cubain(A note on Cuban Patois)*. Havana : Editorial Academia.
- Palacio, Myrtle. 1993. *The People called Garifuna*. Belize : Glessima Services.
- Paz Pérez, Carlos. 1994. *Diccionario cubano de términos populares(Cuban Popular Dictionary)*. Havana :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 Yuscarán, Guillermo, 1983. *The Garifuna Story*. Nuevo Sol.
- Garinagu's Path to the Next Millenium*. 1998. <http://www.garifuna-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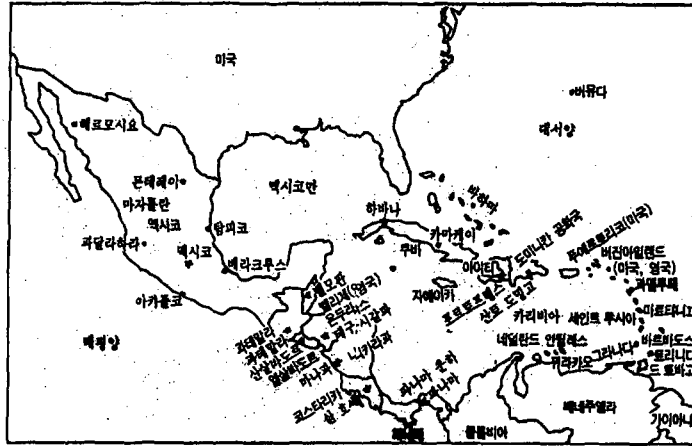
접수일자 : '99. 2. 21.

게재결정 : '99. 3. 15.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외국어대학 서어서문학과(우: 712-702)
 Tel : (053) 850-3152 (O), (053) 853-3391 (H)
 Fax : (053) 850-3407
 e-mail : kimwj@cuth.cataegu.ac.kr

<부록 1>

< 지도 1 > 서인도제도 및 중미(中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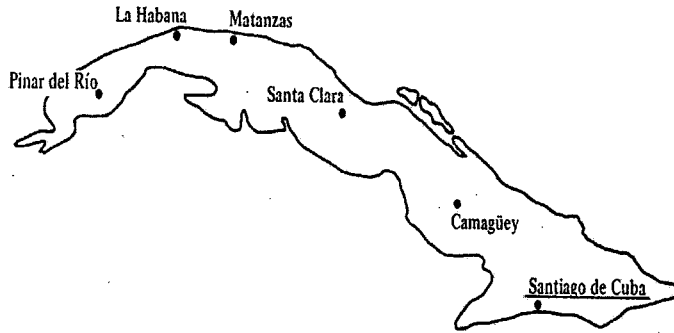
자료 : 김우중 외 4인(1994)



자료 : Guillermo Yuscaran(1983) - Caribbean어 사용 지역

<부록 2>

< 지도 2 > - Cuba내 Patois어 사용 지역



자료: D. Lincoln Canfield(1991)